■여수 출입국사무소 화재 참사 1년

후유증·보상 미비…고통 여전

스프링클러·불연재 마루 설치…"진작 있었다면…"

여수시 화장동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 10명이 숨진 대 참사가 일어난지 11일로 꼭 1년이 지났다. 그러나 부상 외국인들은 후유증과 보상 미비 등으로 인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

사고 이후 중국인 리궈호우(李國厚·44·경기 평택 거주)씨는 호흡곤란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매달 20여만원씩 들어가는 치료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간호를 위해 중국에서 온 부인과 함께 생활하려면 돈을 벌어야 하지만 몸도 성치 않은 자신을 받아줄 곳은 없다.

중국인 슈레이(徐磊·32)씨는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다 단속에 적발돼 사고 직전 여수보호소에 입소했다. 목숨은 구했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판정을 받았고 현재 치료중이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무관심과 간호 목적으로 입국한 친인척의 체류비용의 본인 부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피해자들과 법무부가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부상자의 치료비를 국가배상신청에 의해 받을 수 있게됐으나, 친인척 등의 입국과 체류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남 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지난해 2월18일부터 일주일간 여수성심병원 등에 입원한 '여수 참사' 피해 외국인 노동자 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1명이 단속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미란다 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화재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천정에는 스프링클러가, 바닥에는 불연재 마루가 깔렸다. 특히 환기시설은 개폐식으로 교체돼 불이 나도 유독가스가 외부로 쉽게 배출되도록 했고, 각 방을 나누던 벽과 이중 철창은 사라졌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수공사가 모두 끝나는 오는 3월부터는 외국인들을 다시 수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여수진보연대와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외국인 보호소 폐쇄조치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은 11일 오후 4시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가질 예정이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참사=지난해 2월 11일 새벽 3시 55분 여수 화장동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소 304호실에 수용중이던 조선족 김모(39·화재 당시 사망)씨가 불을 질러 외국인 10명(중국인 9명, 우즈베키스탄인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한 대형 참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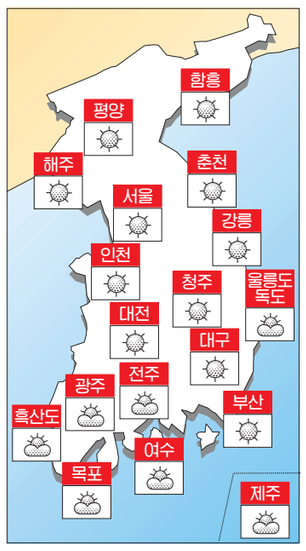
뻥 뚫린 귀경길 지난 6일부터 5일간 계속된 긴 설 연휴로 인해 연휴 마지막날인 10일 오후 호남고속도로 장성 인터체인지 인근 상행선(왼쪽)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년 설과 달리 긴 연휴로 인해 귀경행렬이 분산되면서 귀경길은 전반적으로 수월했다. 〈헬기조종=광주시 소방본부 박창순 대장〉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구름 낀 하루

2월 11일 (음 1월 5일) ◇전국날씨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으며 구름이 많이 끼겠다.

광 주	구름 많음	-2~6℃
목 포	구름 많음	-1~5℃
여 수	구름 많음	1~7℃
완 도	구름 많음	-2~5℃
구 례	구름 많음	-4~7℃
해 남	구름 많음	-4~5℃
장 흥	구름 많음	-4~6℃
고 흥	구름 많음	-3~8℃
순 천	구름 많음	-5~7℃
영 광	구름 많음	-4~4℃
진 도	구름 많음	-1~6℃
전 주	구름 많음	-3~5℃
남 원	구름 많음	-6~6℃
흑산도	구름 많음	1~3℃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먼바다=북서~북동풍 파고 1.0~3.0m

목 포 밀물 04:51 17:05 썰물 10:01 22:22
여 수 밀물 11:46 --:-- 썰물 05:26 17:54

▲해뜸 07:24 ▲해짐 18:10 ▲달뜸 09:23 ▲달짐 22:4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날 씨						
최저/최고	-3/1	-5/2	-3/4	-3/4	-3/5	-2/6

광주 '교복 대물림' 활발

중·고교 88% 실시

교복 대물림이 활발하게 진행돼 새 학기 학부모의 고민거리를 덜어주고 있다.

1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내 중·고교 중 지난해 초 교복 물려주기를 실시한 학교는 전체 141곳(중학교 81곳·고교 60곳)의 88%인 124곳(중학교 53곳·고교 71곳)에 달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체육중·고교나 신설학교처럼 교복 대물림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학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모두 교복을 물려입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올해는 95%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복 대물림이 졸업식의 행사 중 하나로 자리잡으면서 전통이 된 학교도 있다. 광주여고는 지난 2003년부터 졸업식 후 강당 한 켠에 선배들의 교복을 전시해두고 후배들이 가져갈 수 있게 했다. 매년 60~70벌의 헌 교복이 '재활용'되고 있다.

시민단체도 교복 대물림에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광주YMCA는 18~23일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 광주YMCA 2층 무진관에서 '교복 물려주고 물려입기 청소년 녹색장터'를 연다. 광주시내 모든 중·고교의 동·하복, 체육복, 코트 등을 대상으로 14~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행사를 주최하는 광주YMCA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헌옷에 대한 거부감만 없다면 새것 못지 않은 교복을 고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숙박업소 정보 한눈에 광주 511곳 DB 구축

광주지역 숙박업소 정보가 데이타베이스(data base)로 구축돼 관광객들에게 제공된다.

광주시는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시설·서비스가 좋은 숙박업소 511개를 선정해 위치와 객실 수, 시설 상태, 요금 등을 업소별로 정리한 정보를 13일부터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정보가 제공되는 숙박업소는 관광호텔 18개, 일반호텔 3개, 여관급 업소 490개 등이다.

시는 오는 7월부터는 현재 개발중인 생활지리정보시스템(L-GIS)과 연계해 더욱 완성도 높은 숙박업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전남 방문의 해와 전국소년체전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하는 관광객과 선수단이 예약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

고마워요! '365 민원봉사실'

설 연휴 증명서 발급받아 서울 시민 제때 출국

설 연휴 기간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출국을 포기할 뻔한 30대 서울 시민이 광주 서구청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사는 윤모(39)씨는 지난 7일 오전 서구청 '365 민원봉사실'을 찾았다. 연중무휴로 민원을 처리해주는 '365민원봉사실'은 서구청만의 특수사업이다.

윤씨가 설 명절날 광주를 찾은 것은 혼인관계증명서 때문. 국제결혼한 그는 출국 예정일(8일) 하루 전날에야 출국을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러나 설 연휴로 전국의 모든 관공서가 쉬는 데다,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무인발급기를 통한 민원처리가 불가능했다. 다급해진 윤씨는 인터넷을 통해 설 연휴에도 민원처리를 하는 곳을 찾던 중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365 민원봉사실'을 알게됐고, 한달음에 KTX를 타고 광주까지 내려온 것이다.

윤씨는 당직 근무중인 직원의 도움을 받아 1분여 만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곧바로 서울로 향했고 다음날 출국길에 오를 수 있었다.

윤씨는 "인터넷을 통해 소개된 '365 민원봉사실' 내용을 보고 기대 반 의심 반으로 광주에 내려왔는데, 설 명절에 구청장까지 근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서구의 주민 감동 행정서비스를 받게돼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전주언 서구청장은 "누구나 줄 수 있는 행정은 감동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최고의 감동 서비스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내근 인력 10% 줄여 치안 현장 배치

광주·전남 경찰 '술렁'

경찰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내근 인력 중 상당수를 빼내 일선 치안현장에 배치하기로 하자 경찰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10일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각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의 내근 인력 10%를 줄여 외근 부서로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경찰은 경무기획·수사·외사·보안·정보·생활안전·교통·감사 등 각 기능별로 취합된 내근 인력 재배치 안을 검토중이다. 줄어든 내근 인력은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 등의 현장근무 인력으로 재배치된다.

경찰청은 또 최근 광주경찰청의 정원 30여명을 줄여 이 중 10여명을 치안수요에 비해 경찰 인력이 적어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경기청으로 재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력 재배치 계획이 추진되면서 각 내근부서는 인력 감축 폭을 줄이기 위해 담당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정원 축소 방침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광주청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경찰 공무원은 지금 당장 줄이지 않는 대신 자연감소분은 뽑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느 부서건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현장 인력을 늘리려면 내근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이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 광주시 종합대책 마련

광주시가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해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유통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수질관리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오는 2012년까지 모두 25억원을 투입해 수질검사 항목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맞추는 등 단계적인 수질관리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청정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질검사 항목을 11개 추가, 모두 120개로 늘리고 2012년까지는 WHO 권고수준인 145개 항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시민감시단과 함께 가정 내 수도꼭지 검사를 매달 실시, 주민들에게 통보해주는 '수돗물 수질 확인제'를 실시키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09년 교원임용고사 대비=
겨울방학 교육학+전공 특강
2009학년도 새롭게 변화된 시험제도 곧 새로운 기회!!
최고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현대교원임용 교수진과 함께 시작하십시오.
교육학 김인식 교수(직강) 개강 1월 10일(목) 10:00~19:00
초등교육 배재민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3:00~19:00
유아교육 박수정 교수(직강) 개강 1월 7일(월) 15:00~21:00
국어 유광재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0:00~18:00
물리 류호강 교수(직강) 개강 1월 6일(일) 10:00~17:00
과학교육론 류호창 교수(직강) 개강 1월 5일(토) 14:00~18:00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합격설명회 =
매주-(화,목)오후 6시-(토) 오후 3시
현대고시학원 등부경찰서 옆 062)222-6790
www.hgosi.net

= 가장 확실한 합격의 길!! 무등과 함께 하십시오!! =
7·9급 공무원 완전대비
강좌종
행정직 교행직 세무직 관세직 감사직 법원직 검찰직 교정직 보호직 소방직 전산직 복지직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47년 동안 합격시켜 본 경험이란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치른 보물이다.=
정규이론D반 모집 =2개월 완성 이론반= 개강 2월15일
9급 문제풀이반 =1개월 완성 코-스=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www.mdgosi.co.kr

www.hanbitgosi.co.kr = 2008년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2008년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9급 공무원 합격大특강
개설직종 : 행정직, 교육행정직, 세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회복지직, 군무원, 교정직, 소방직, 농업직, 토목직, 건축직, 전산직, 보건직, 기술직
9급 문제풀이반 (1개월완성)
9급 이론짝수반 (2개월완성)
개강 3월3일 전직종 첫진도
사전예약접수중
석차금액 1위 한빛공무원학원 전대후문 북구청앞 (062) 252-0252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허가번호 : 제2006-1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무등산 문빈정사
극락전 납골당이 있습니다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_ 벌초를 하지 않아 황폐화된 묘, 떼가 벗겨진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연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_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 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시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_ 이장을 해 본 사람들은 봉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_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납골당에 봉안 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한주 석장 합장 -
卍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문빈정사 납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_062-228-0108, 010-5103-4004